

미국의 FTA 목적은 '농업 개방'

미국은 다음달 2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말해 한국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FTA 협상의 의도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목적이 상대 국가의 농업 개방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톰 포트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스위스와 FTA 협정 협상을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외 FTA 협정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말했다. 포트만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이 한국과 FTA 협정을 맺으려는 것도 한국의 농업 시장을 완전 개방시키려는 목적임을 내보인 것이다.

현재 다보스 포럼에 참석중인 포트만 대표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다음달 2일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공식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트만 대표는 “미국이 7번째 무역 교역국인 한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미국이 지난 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를 체결한 이후 최대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주미 대사관과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해부터 한·미 FTA와 관련한 사전 협상을 벌여왔으며 한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에 이어 최대 쟁점이었던 스크린쿼터 문제까지 지난주에 타결지었다.

한국은 미국측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일수, 이른바 스크린쿼터를 현재의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마치 한국이 결단을 내린 것처럼 말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중반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놓고 미국측과 줄다리기를 벌여왔으며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 않으면 FTA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 양보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스위스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스위스가 고기와 농산물을 개방하지 못한다고 맞서는 바람에 FTA 협상을 포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사전 협상에서 치즈와 고기, 미국산 농산품을 자유무역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그러면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미국과 스위스의 FTA 체결 협상은 없던 일이 돼버렸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국·싱가포르 FTA 내달 2일부터 발효

한국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2일 발효된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31일 밝혔다. 이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 상호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간 FTA가 발효되면 상품교역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상품 중 59.7%인 6724개, 싱가포르 측은 모든 품목에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수 후계농업인 정책자금... 농림부 연 3% 저리지원

우수 후계농업인에 대해 올해부터 8000만원의 정책자금이 저리로 추가 제공된다. 농림부는 정예 농업인력의 확충을 위해 후계농업인(옛 영농후계자)에 대해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농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 인원은 1500명으로, 1명당 최고 8000만원씩 총 1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2000년 이전에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돼 현재도 영농에 종사중인 경우로 한정된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대출은 7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작년 친환경 농산물 73% 늘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출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1년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출하량이 79만8천t으로 2004년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00년 3만5천t의 2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인증 종류별 출하량은 3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가 3만8천t으로 4.8%를 차지했고 전환기 유기(1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는 3만t(3.8%)이었다.

또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무농약이 24만2천t(30.3%),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저농약은 48만8천t(61.1%)이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가 32만6천t으로 제일 많고 과실류 28만9천t, 곡류 9만4천t 등이었다.

인증 농지 면적은 5만ha로 79% 늘었고 해당 농가수는 5만3천 농가로 83% 증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웰빙붐의 확산과 함께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